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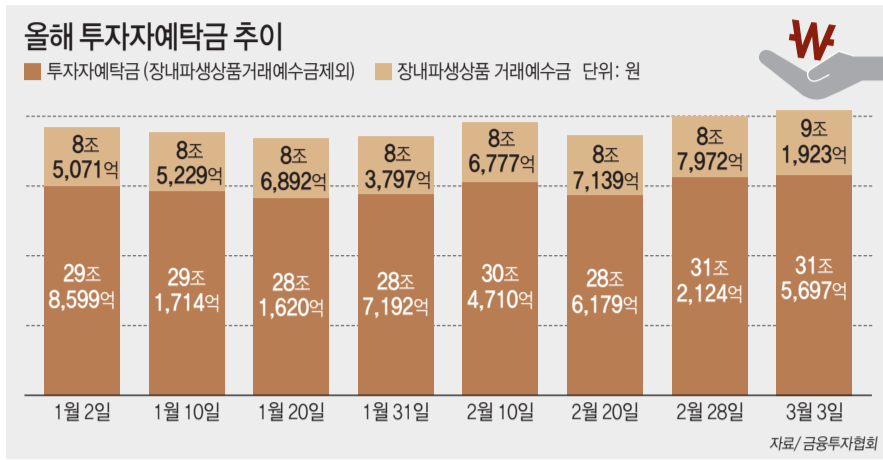
“쌀 때, 빛내서라도 사자” 개미가 떠받치는 한국증시

외국인 7거래일 연속 매도 속 개인 ‘빛투자’ 등 상승장 견인
올 들어 코스피 10.5조원 매수
IT·소프트웨어 등 주도주 여전

지수 저점부터 시작된 개인의 ‘사자’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도로 포지션을 전환하며 12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는 끊겼지만 지수 하락 때 저점매수에 나서려는 정황은 여전하다. 주가 하락에 따른 밸류에이션(가치평가) 부담이 완화되며 저가매수의 기회로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기간 국내 증시의 구원투수로 나선던 연기금은 해외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며 잠잠한 모습이다.

◆“쌀 때 사자” 증시 안전판 된 ‘개미’
변동성이 커진 장세에서 시장주도권은 개인에게 향했다. 최근 개인의 매수행진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지난 3일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약 7500억원 규모의 주식을 팔았지만 개인이 7103억원 어치를 사들이며 소폭 상승장을 견인했다. 2일도 비슷한 흐름이



었다. 외국인과 기관이 벌어진 매물을 받아내며 국내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24일부터 7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서며 4조5000억원 이상 순매도를 기록했으나 4일 매수세로 돌아섰다.

개미들의 ‘빛 투자’도 늘었다. 신용용자 잔고는 지난달 10일 10조원을 넘어선 후 10거래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 중이다. 증시 대기 자금으로 불리는 투자자예탁금도 지난달 말 30조원을 돌파하며 2월 33조원을 넘어섰다. 투자자예탁금은 주식 사기 위해 현금을 증권계좌에 넣

어든 돈을 뜻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은 올해 들어 전날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약 10조 55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12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기간 동안 사들인 주식 금액을 12일만에 사들인 셈이다.
개인이 현재 장세를 확실한 저가매수의 기회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투자자예탁금 규모와 계좌 수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코로나 19가 진정세에 접어드는 대로 주가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연기금은 지난달 17일 이후 코스피가 약 10% 조정을 받았음에도 단 600억원 순매수에 그쳤다. 투자 포트폴리오상 국내 주식 비중을 꾸준히 줄이고 있어서다. 코스피가 최저점을 찍었던 지난해 8월 1조5000억원을 풀며 구원투수로 나선 것과 다른 모습이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지원사격’은 기대감이 낮아졌다. 올해 연간 기금운용계획상 국내주식의 목표 비중(17.3%)은 이미 달성했다. 지난해 코스피 시장에서 9조6571억원 순매수했지만 올해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 얘기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해외주식투자 비중을 늘리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지난해 재미를 톡톡히 봤다. 국내 증시에서 국민연금 영향력은 계속 작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소비재도 주목”
개인의 매수가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려면 주도주 위주로 대응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IT(정보기술)와 소프트웨어 등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호 신한금

융투자 연구원은 “이달도 기존 주도주가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지난 두 달간 업종별 수익률을 보면 기존 주도주였던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IT하드웨어 등이 1월에 이어 2월도 양호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주가 차별화를 이끈 것은 낙폭 과대가 아니라 펀더멘털(기초체력) 변화라는 분석이다.

그는 유망 업종으로 높아진 원·달러 환율에 따른 IT, 자동차, IT하드웨어와 전염병과 상관성이 낮은 소프트웨어, 미디어 등을 추천했다.

온라인 소비 관련주도 눈여겨볼 대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출활동이 제한되며 온라인 소비에 나선 소비자 증감감을 느낀 이들은 그대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염병 이슈가 끝나도 온라인과 소매판매의 괴리가 벌어질 수 있다”며 “미국 IT(정보기술)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업체는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규제도 상대적으로 적다. 지속된 저금리에 소비 패턴이 온라인 구매로 향하면 소프트웨어 산업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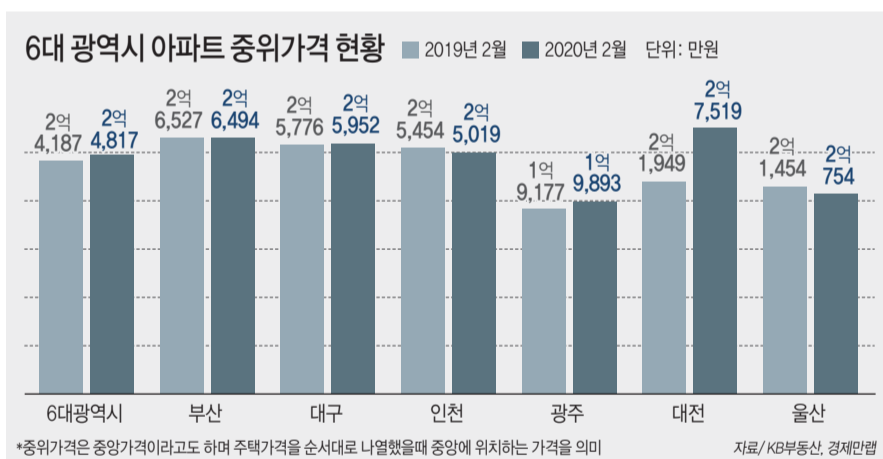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아파트 중위가격, 6대 광역시 중 대전 최고

1년간 25% 오른 2억7519만원
부산이 2억6794만원으로 2위

올 2월 6대 광역시에서 아파트 중위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나타났다. 4일 경제만랩에 따르면 작년 2월 6대 광역시 아파트 중위가격은 2억 4187만원에서 올 2월에는 2억 4817만원으로 1년간 2.60% 상승했다.

그 가운데 대전 아파트 중위가격은 1년간 25.38% 올라 6대 광역시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2월, 대전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2억 1949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 2월에는 2억 751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KB부동산이 통계를 시작한 2013년 4월 이후 최초로 대전이 6대 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다. 지난해 2월 부산의 경우 올 2월 2억 6494만원으로 대전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대구는 지난해 2월 2억 5776



만원 수준에서 올 2월에는 2억 5952만원으로 0.68% 상승하는데 그쳤다.
대전 유성구 도동동에 있는 ‘도룡SK뷰’ 전용 84.9㎡의 경우 지난해 3월 8억 2500만원에서 지난해 11월 10억 1000만원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 올 2월에는 10억 5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렇게 대전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4

월 15일 총선 전까지 추가 부동산 규제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대전의 경우 비규제지역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조건이 충족되지만 규제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서명석 유안타증권 대표 물러난다

귀명정 단독대표 체제로 운영

서명석 유안타증권 대표이사(사진)가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에 따라 유안타증권은 귀명정 대표의 단독 체제로 운영된다.

4일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전날 공식된 주주총회소집결의에서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2013년부터 대표이사 사장으로 활동해 온 서 대표의 임기는 오는 27일 종료된다. 전날 사내 메신저를 통해 직원들에게 “감사했다”는 내용의 심경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 대표는 유안타증권 전신인 동양증권 리서치센터장과 경영기획부장(CFO), 부사장 등을 거처온 ‘윌클럽맨’이다. 동양그룹 사태가 벌어지며 동양증권이 대만 유안타그룹에 매각돼 사명이 유안타증권으로 바뀐 이후에도 대표이사직을 유지했다. 7년간 유안타증권 대표를 맡아 내부 신망이 두터웠다.

/송태화 기자 alvin@

한국투자증권 IRP 가입 이벤트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 말까지 뱅키스(BanKIS) 고객을 대상으로 ‘IRP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 뱅키스는 비대면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개설하는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 거래 서비스다. 뱅키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처음 개설한 고객은 커피 기프트콘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은 10만원 이상 가입하고 12개월 이상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을, 100만원 이상 가입하면 백화점 상품권 2만원권을 선물한다. /송태화 기자

한국증권금융, 코로나19 극복에 1억 후원

의료진·방역인력 마스크 등에 활용

한국증권금융이 4일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1억원을 후원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다. 이번 후원금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인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스크, 건강보조키트와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감염병 예방물품, 생필품, 식료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정완규 한국증권금융 사장(사진)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위기경보



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구호물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난취약계층, 의료진 및 방역 관계자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등 관계자분들께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태화기자

LH, 안전 건설환경 조성 모니터링 시행

건축구조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전담조직 구성 등 본격 업무 준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민국의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 모니터링’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건축모니터링’은 기후·건축기술의 변화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재료 등의 기준을 검토 및 개선하고 인허가 신청 건축물의 구조기준 준수 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제도이며, 지난 2014년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LH는 제도시행 초기부터 2019년까지 총 3291건의 건축 인허가 신청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했으며, 지난 2월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최초 건축구조 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담조직 구성 등 본격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LH는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축적해 온 건축구조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축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확보와 함께 해당 분야 기술발전을 선도하고, 국민들이 건축구조 기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설계 기준 적용에 대한 상담 서비스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LH가 인허가 건축물의 구조기준 준수여부 확인 업무를 공동수행함으로써 건축물 구조부에 대한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독이 보다 철저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연우기자 ywj964@